

# 휘발유값 2000원 돌파 ‘눈앞’... 당분간 高유가 지속될 듯

유류세 인하 연장에도 2달전 대비 휘발유 가격 177원, 경유 253원 ↑

“美, 산유국 제재 해제 가능성 등에 유가상승 경향성 바뀌기 어려워” 일부 주유소 기름 비축 나서기도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경유·휘발유 소비량이 크게 늘었다. 산유국들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기침체까지 기름값에 영향을 주고 있어 고유가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일부 주유소의 ‘사재기’까지 언급되는 실정이다.

31일 오픈넷에 따르면 전국평균으로 휘발유가 1746.07원, 경유가 1632.93원을 기록했다. 2달 전인 7월 1일 휘발유가 1569원, 경유가 1379원이었던 때와 비교하면 제품당 177원, 253원가량 상승한 가격이다.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기름값이 최근 크게 올라 사재기에 나서려는 이들이 늘면서 국내 경유·휘발유 소비량이 크게 늘고 있다. 사진은 지난 30일 오후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하는 모습. /뉴시스

이 없었더라면 더 가파르게 상승했을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가까운 시일 내에 2000원대 주유소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유 가격은 더 빠르게 올라갔다. 한 달 전과 비교해 휘

발유가 98원 올랐다면 경유는 172원 올랐다. 전국 최고가는 휘발유 2773원, 경유 2755원을 돌파했다.

이미 유가 상승과 수요 최고치 경신은 예견된 바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8월 월간 보고서에서 세계석유수

요가 6월에 사상 최고치인 1억 300만b/d(하루 사용 배럴)에 달하며 8월 수요가 고점을 재차 경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현재 생산정책을 유지할 경우 3~4분기 석유 재고가 각 220만b/d, 120만b/d 속도로 빠르게 감소할 것”이라며 유가 상승 가능성을 점쳤다.

이러한 영향으로 국내 휘발유 소비량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휘발유 소비량은 838만4000배럴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756만1000배럴을 소비했던 6월과 비교해 82만3000배럴 증가한 수치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제재 해제 가능성이 있고, 여름 드라이빙 시즌도 끝나가고는 있다”면서도 “오펙의 감산 기조는 여전하고 이에 따라 기름 수요가 타이트하게 이어지고 있어 국제유가 상승의 경향성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

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일부 주유소들이 기름이 비싸질 것을 대비해 기름 비축에 나서자 ‘사재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하지만 공급이 줄고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업주 역시 제품을 비축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정유사 공급가가 일선 주유소에 반영되는 것은 통상 1~2주, 길면 2~3주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기에 주유소는 이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재기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사재기라는 표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탱크를 주유소에 추가로 구입해서 석유 제품을 더 많이 비축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혹여라도 국제유가나 기름 가격이 어떠한 요인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비축을 결정할 주유소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건 경제원리”라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Q 르포 | 매년 100만명 찾는 ‘2023 대구치맥페스티벌’ 가보니

# “평일도 붐벼... 로봇이 따르는 맥주 인상적”

올해로 11주년... 오는 3일까지 개최 ‘대프리카’ 열기에도 참가자 기대감 치킨·맥주 브랜드 80여곳 참여 오비맥주 카스·한맥 ‘공식 파트너’

엔데믹 전환 후 맞는 ‘2023 대구치맥페스티벌’이 성대하게 막을 올렸다.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한 대구치맥페스티벌은 지난 10년의 역사를 지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더 뉴 퍼스트(The New 1st)’를 슬로건으로 삼고 30일 개막했다. 올해는 예년보다 늦은 30일부터 9월 3일까지 달서구 두류공원 일원과 동구 평화시장에서 열린다.

아프리카 사람들도 혀를 내두른다는 ‘대프리카’ 대구의 뜨거운 열기는 이날 내린 비 때문에 다행히 한풀 꺾였다. 개막식은 오후 7시 30분이었지만, 행사를 앞둔 오후 5시부터 공원 내 잔디광장에는 삼삼오오 모인 사람들로 가득했다. 홍보 영상 상영과 함께 DJ들의 식전축하공연이 일찍 현장을 찾은 방문객들의 흥을 돋웠다. 간헐적으로 내리는 비에 습도가 높아 불쾌감이 높아졌음에도 사람들의 얼굴에는 행사에 대한 기대감이 번졌다.

‘대구치맥페스티벌’은 매년 10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는 대표적인 여름축제다. 80여 개 치킨·맥주 브랜드가 참여하는 전국의 치맥 축제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축제다. 오비맥주 카스와 한맥은 ‘2023 대구치맥페스티벌’ 공식 맥주 파트너로 참여했다.

두류공원 메인홀에 위치한 ‘카스 부스’에서는 맥주로봇 ‘비어박스’가 따라주는 카스와, 출시 4주 만에 200만 캔 판매 돌파로 인기를 얻고 있는 한정판 ‘카스 레몬 스위즈’를 만나볼 수 있었다.

최근 수지를 새로운 광고 모델로 선정해 화제를 모은 한맥도 메인 파트너



오비맥주 카스와 한맥이 ‘2023 대구치맥페스티벌’에 공식 맥주 파트너로 참가했다. 배하준 사장(가운데) 등 관계자들이 팝 아티스트 ‘임지빈’ 작가와 협업한 ‘대형 카스 베어 벌룬’ 포토존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오비맥주

로서 대규모 맥주 부스를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극강의 부드러움을 자랑하는 한맥 생맥주 ‘더블 스무스 드래프트’도 맛볼 수 있다.

치킨 브랜드로는 교촌치킨을 비롯해 치맥킹, 또래오래, 갯튀김후라이드, 아라치치킨, 와버트치킨, 보드랍치킨의 본사가 참가했다.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만큼 대구시는 안전한 행사 운영을 위해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을 동원했다. 최근 불거진 일련의 사건·사고와, 휴식 모를 주취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 행사장 곳곳에는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날 개막식에는 흥준표 대구시장 무대에 올라 “대한민국에서 100만이 모이는 축제는 많지 않다”며 “치맥페스티벌은 대구를 대표하는 축제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라고 말했다. 이어 “마음껏 즐겁게 놀고 편안하게 잘 지내다가 가길 바란다”며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지난해 전 좌석 매진으로 큰 관심을 끈 프리미엄 치맥 라운지는 전년 대비 2

배 규모인 1088석으로 늘렸음에도 방문객들로 붐볐다.

행사장을 찾은 대학생 커플은 “비도 오고 평일이라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놀랐다”며 “치킨도 맛있고,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한맥 생맥주와 로봇이 따르는 맥주도 인상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말에는 부모님이상 와서 한번 더 축제 분위기를 즐기려 한다”고 덧붙였다.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 오비맥주 관계자는 “지역 축제 후원으로 해당 지역의 상권 활성화는 물론이고, 카스의 음용접점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또 한맥의 부드러운 생맥주 경험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오비맥주 측은 여름 축제 시즌이 지나고 추석과 연말이 다가오면서부터 카스는 ‘함께’라는 브랜드 메시지를 담아 친구, 연인, 가족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마케팅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맥의 경우 한맥 생맥주 경험을 즐길 수 있는 ‘스무스하우스’를 전국 5곳에 완공 예정이며, 이외에도 한맥 생맥주 사업 업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오비맥주 카스는 유명 팝 아티스트 임지빈 작가와 협업한 ‘대형 카스 베어벌룬’ 조형물과 함께 분수대 전망을 바라보며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카스 물명존’, 터치스크린으로 즐기는 ‘카스 x 텐텐 게임 플레이 존’, 유명 일러스트레이터 마우스 작가와 이슬로 작가가 협업한 ‘초대형 카스캔 포토존’ 등 다양한 소비자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해 축제의 즐거움을 극대화한다. ‘카스 브랜드 데이’로 지정된 9월 1일과 2일은 신나는 EDM 파티와 함께 조현아, 비와이, 키드밀리 등 인기 아티스트들의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대구=신원선 기자 tree6834@



한국지엠 사장, 보령공장 방문 ‘소통경영’

한국지엠 사장, 보령공장 방문 ‘소통경영’

한국지엠 신임 사장(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30일 충청남도 보령시에 위치한 GM 보령공장을 방문해 6단 자동변속기 600만 대 생산 돌파 기념식을 개최하고 임직원들과 소통했다. 공장 설립 이후 27년간 노사 간의 화합을 바탕으로 단 한차례의 파업 없이 높은 생산성과 뛰어난 품질 관리를 만들어 낸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지난 2007년 GM 최초로 6단 자동변속기(GF6) 양산을 시작한 보령공장은 자동차 공장의 생산성 지표인 하버 리포트에서 2020년까지 6단 자동변속기 분야에서 최고의 생산성을 인정받았다. /한국지엠

## 현대차그룹, 해외진출 협력사 3000억 지원

신보와 맞손, 동반진출 지원 협약 1.5%p 우대금리 적용 L 특례보증

현대자동차그룹이 신용보증기금과 손잡고 해외 동반 진출하는 협력업체에 3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례보증을 받은 기업은 시중은행에서 최대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현대차그룹은 31일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프론티원(신용보증기금 옛 사옥)에서 신용보증기금과 ‘현대차그룹 해외 동반진출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현대차그룹은 보증지원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150억원을 특별 출연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현대차그룹의 특별출연금을 기반으로 3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업당 신용보증 한도는 70억원(일반보증 기준)에서 최대 300억원으로 상향되며, 보증대상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

된다. 보증 비율은 90%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는 0.5%로 우대 적용하며, 은행 대출 금리는 최대 1.5%포인트 인하한다.

신용보증기금이 심사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 기업을 선정한 후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면, 기업은 발급받은 보증서를 담보로 유동성을 추가 확보해 해외 사업 운용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보다 원활히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심현구 신보 전무이사, 김동욱 현대차그룹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신용보증기금과 국내 시장의 수소·전기차 부품 협력사,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업체 등의 신용보증 확대를 위한 협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국내 부품 협력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 및 미래 자동차 부품 생산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함께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